

## 위료옹(魏了翁)의 춘추학(春秋學) 사상 특징에 관한 고찰

— 『춘추좌전요의(春秋左傳要義)』를 중심으로 —

장상량\*

### 〈차 례〉

1. 서론
2. 존왕양이(尊王攘夷)
3. 군신공치(君臣共治)
4. 이민위상(以民為尚)
5. 결론

### 【국문초록】

위료옹(魏了翁, 1178~1237)은 남송(南宋) 시대에 유명한 이학가·사상가·경학가·교육가·문학가이자 촉학(蜀學)의 완성자로 송나라의 학술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나라(唐代) 중후기 이후 경학의 학술은 창조적인 요소들이 나타났다. 담조

---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박사과정

(啖助, 724~770) · 조광(趙匡, ?~?) · 육순(陸淳, ?~806) 세 명의 학자는 경서의 해석 양식을 새로이 창립하여 송나라의 춘추학에 관한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송나라의 의경 사조(疑經思潮)의 선두가 되었다. 송나라의 경학은 한당(漢唐) 시기에 훈고하고 주석하는 전통에 벗어나 스스로의 관점에서 경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위료옹은 송학을 반성하였으며, 고전 문서의 해석과 선유(先儒)의 주석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의 경학 사상은 한나라와 송나라의 사상을 견지하며, 유교 고전을 근거로 삼고 송나라 유교 의리를 기본으로 하기에 경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송나라 시기에는 춘추학에 관한 연구가 가장 성행하였는데, 위료옹은 평생에 걸쳐 많은 저술 활동을 펼쳤다. 그의 작품 『구경요의(九經要義)』는 유교의 다양한 해석들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의리를 중점적으로 논술했다. 그 가운데서 『춘추좌전요의(春秋左傳要義)』는 두예(杜預, 222~284)와 공영달(孔穎達, 574~648)이 주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전 문서의 본의를 존중하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고전이다. 본 논문은 『춘추좌전요의』를 중심으로 위료옹의 춘추학 사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위료옹, 춘추좌전요의, 송나라, 춘추학

## 1. 서론

위료옹은 등주포강(鄧州蒲江, 지금의 사천포강) 사람으로 자가 화부(華父)이고 호는 학산(鶴山)이며 세상 사람들은 ‘학산선생(鶴山先生)’이라고 칭하였는데, 장식(張栻, 1133~1180)과 주희(朱熹, 1130~1200)를 잇는 남송의 유명한 이학가이다. 위료옹의 학술 사상과 교육활동 및 그가 창립한 학파는 당시 중국 사상계와 사대

부(士大夫) 계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학술과 교육을 발전시켰으며, 인재 양성에 혁혁한 공적을 남겼기에 당시의 또 다른 명사였던 진덕수(真德秀, 1178~1235)와 합쳐서 진위(真魏)라고 불렸다.<sup>1)</sup> 위료옹의 경학(經學) 사상은 송학(宋學)을 위주로 하고 한학(漢學)을 채택하며 유교의 고전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학술적 고증을 중시하였으며 의리적 관점을 사용하여 유교 고전을 해석할 것을 권장하였다. 송나라 시기에 경학에 관한 연구는 춘추학이 번창해짐에 따라 풍부한 성과를 나타낸다. 당시 정치적 배경과 학술적 풍조로 인해 위료옹의 『춘추좌전요의』는 다른 유학자들에 비해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춘추학에 관한 연구와 몇몇 관점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에 후대 유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남송 말기에는 나라가 쇠퇴해짐에 따라 학파 간의 학술적 다툼이 점차 파벌 싸움으로 이어졌는데, 송나라 유학자들은 대부분 주석과 해석을 버리고 자신의 관점으로 경서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위료옹은 당시 풍속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는 고전 문서를 고찰함으로써 경서의 본뜻을 체득하고 성현이 경서를 제작할 때에 가졌던 본래의 의도를 얻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춘추좌전요의』는 그의 『구경요의』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데, 공영달의 『정의(正義)』를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하였다. 그는 선유들의 주석을 초록하여 각 항목 앞에 제목을 붙여 순서를 나누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서술을 덧붙였다. 위료옹이 이 책을 저술할 때에는 송나라 유학자들의 불용삼전(不用三傳)<sup>2)</sup>이라는 전통을 폐기하였고, 『좌전』 가운데 두 예와 공영달의 주석 및 문장의 해석과 고증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의리적 관점을 사용하여 경서를 해석하는 송나라의

1) 蔡方鹿, 『魏了翁評傳』, 四川: 巴蜀書社, 1993, 참고.

2) 『춘추』를 해석하는 책, 『좌전(左傳)』, 『공양전(公羊傳)』, 『곡량전(谷梁傳)』을 가리킨다.

춘추학의 배경에서는 행하기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다.

본 논문은 위료옹의 춘추학 사상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학술적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그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인 『춘추좌전요의』에 대한 위료옹의 주장과 견해를 연구하고, 존왕양이(尊王攘夷), 군신공치(君臣共治), 이민위상(以民為尚)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춘추좌전요의』 및 이와 관련된 논문은 거의 공백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료옹의 『춘추좌전요의』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의 춘추학 및 철학사상의 관점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위료옹 춘추학이 송나라 춘추학에서 맡은 역할과 그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 2. 존왕양이(尊王攘夷)

송나라는 오대십국(五代十國)이라는 난세를 거친 뒤에 건국된 국가였기에 도덕과 윤리를 재정비하여 통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학자들은 발난반정(撥亂反正)의 방책을 찾기 위해 한당(漢唐) 시기의 주석 문화를 점차 폐기하고 전통 고전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질서의 설립을 발굴하고자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춘추』는 계급을 구분하여 ‘미언대의(微言大義)’를 통해 선(善)을 기리며 악(惡)을 폄하한다는 점이 당시 정세의 수요와 맞아떨어졌다. 지식인들은 유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고취하였는데, 이들은 ‘존왕(尊王)’과 ‘충군(忠君)’을 제창함으로써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김동민은 “주자는 『춘추』에 담긴 대의의 존재를 강하게 믿었고, 현실의 정치에서 그 대의의 실현을 갈망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고 말한다. 이처럼 『춘추』의 대의(大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名分)을 다스리고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내세워

내외를 구분하고 국민과 오랑캐를 분별하는 것이다. 제환공(齊桓公)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주나라(周朝) 천자를 우러러 존송하여 천하를 안정시킨 적이 있는데, 주희는 그의 행위를 “주나라를 존송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것은 모두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다.”<sup>4)</sup>라고 평가하였고,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일지록(日知錄)』에서 “선인 부자(夫子)들의 문장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춘추』이다. 『춘추』의 대의는 왕실을 존송하며 외적을 배척하고 난신적자를 주벌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본성이자 천도로다.”<sup>5)</sup>라고 주장하였다.<sup>6)</sup> 『춘추』 가운데 이하문제(夷夏問題) 또한 송나라 유학자들이 특별히 관심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존왕’과 ‘양이’는 춘추학의 주된 내용으로 북송(北宋)의 유학자들은 고전을 논할 때 주로 경문을 빌려 강상(綱常) 윤리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짙었는데, 이러한 학술 사상은 ‘존왕’을 기초로 한다.<sup>7)</sup> 사마천(司馬遷)은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와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 『춘추』 속의 ‘존왕’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 3)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주제 속 주희, 현대적 주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209쪽 참조.
- 4) 朱熹, 『论语集注』「憲問」18, “尊周室, 攘夷狄, 皆所以正天下也.”
- 5) 顧炎武, 『日知錄』(『四部備要』本) 卷7, “夫子之文章, 莫大乎『春秋』, 『春秋』之義, 尊天王, 攘戎翟, 誅亂臣賊子, 皆性也, 皆天道也”
- 6) 顧炎武, 『日知錄』(『四部備要』本) 卷3, 5쪽, 『日知錄』, “炎武為清代考證學之始祖, 是書〈自記〉稱: ‘自少讀書, 有所得, 輒記之. 其有不合, 時復改定. 或古人先我而有者, 則遂削之. 積三十餘年, 乃成一編’ 蓋其一生精力之所注也.”
- 7) 程伊川主張嚴辨君臣之分, 他說: “父子君臣, 天下之定理, 無所逃於天地之間, 安得天份, 不有私心, 則行一不義, 殺一不辜, 有所不為. 有分毫私, 便不是王者事.” 『二程全書』 卷5, 참조. 仁宗景祐二年, 李照以五音喻君臣尊卑, 他說: “聲重濁者為尊, 輕清者為卑, 卑者不可加於尊, 古今之所同也. 故列聲之尊卑者, 事與物不與焉, 何則? 事為君治, 物為君用, 不能尊於君故也. 惟君、臣、民三者, 則自有上下之分, 不得相越, 故四清聲之設, 正為臣民相避, 以為尊卑也.” 『續資治通鑑長編』 卷116, 참조. 司馬光說: “『春秋』抑諸侯, 尊王室, 王人雖為序於諸侯之上, 以是見聖人於君臣之際, 未嘗不惓惓也.” 『資治通鑑』, 卷1, 〈周紀一〉, 참조. 이것은 모두 尊君卑臣이 송대의 주요 학술 사조임을 설명한다.

노나라의 역사를 근거로 삼고, 주나라를 칭송하고, 은나라를 귀감으로 삼고, 삼대를 관통하고 있다. 그 문장은 간결하지만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넓었다. 그래서 오와 초의 국군이 왕으로 자칭하자 『춘추』는 그것을 ‘자(子)’로 깎아내렸다. 천토(踐土)의 회맹(會盟)에서는 실제로 주 천자를 불렀지만 『춘추』는 그것을 피해 “천자가 하양(河陽)에 사냥을 나갔다.”라고 하는 등 이런 기준으로 해당 시대의 시비를 판단했다. 이렇게 칭송하고 비평하는 대의는 후세 왕들이 이를 취하여 도움을 받게 했다. 『춘추』의 대의가 시행되면 곧 천하의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겁을 낼 것이다.<sup>8)</sup>

그러나 남송 시기에는 민족 간의 갈등과 외환(外患)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왕실은 조정의 안전과 잃어버린 국토를 수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춘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양이(攘夷)’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지도록 만들었다. 『춘추』의 경문에 대한 송나라 유학자들의 해석은 『공양(公羊)』의 ‘양이’ 사상을 빌려 씌으로써 민족의 대의를 고양시켰으며, 공양학의 ‘삼세설(三世說)’이라는 개념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주나라 통치권 범위 내는 내(內)로 주변 화하 각 민족을 외(外)로 구분한다.(內其國而外諸夏.)’, ‘각 민족을 내로 이적을 외로 구분한다.(內諸夏而外夷狄.)’라는 관념을 확실하게 인정하였다. 남송 정권은 항상 북방 강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기에 위료용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

중국은 송나라 함종(欽宗) 조현(趙桓)시대 이래 여진족을 위해 ‘중성’을 혼란시켰으며 수백 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는 하늘이 ‘중원’을 회개했다는 뜻이다. 호걸의 부상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8) 『史記』卷47 〈孔子世家〉, 21쪽, “據魯, 親周, 故殷, 運之三代, 約其文辭而指博, 故吳楚之君自稱王, 而『春秋』貶之曰子; 踐土之會, 實召周天子, 而『春秋』諱之曰: 天子狩於河陽; 推此類以繩當世貶損之義, 後有王者, 舉而開之, 『春秋』之義行, 則天下亂臣賊子懼焉.”

에는 ‘달단(黠鞬)’로 천흥하고, ‘중성’도 변한다. 여진족은 ‘달단’의 사람인데, 이는 모두 동북의 변두리 오랑캐로 죽이는 것을 즐기고 잔인한 것이 마치 금수와 같으며, ‘중토’는 예의를 회복하지 못했다. ‘오호란화(五胡亂華)’ 이래, 6대를 거쳐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렀던 것과 같다. ... 변화와 함양으로 인해 이번 조대는 점차 선한 것으로 개혁되었다. 어찌 하루아침에 쌓일 수 있겠는가, 현재로선 촉의 삼변과 형양 양회지 변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단’에서 ‘중성’을 바꾸기 위해 몰락했는가. 이것을 매우 애도할 수 있겠는가, 천하가 언제 복고할 것인가!<sup>9)</sup>

정강의 변(靖康之變) 이후 유학자들은 한족과 이민족의 관계가 ‘화하를 중심으로 주변 이적은 외로 한다.(華夏居中, 四夷處外.)’라는 지역적 인지에 근거하여 중원왕조(中原王朝)의 황제가 북방의 이적 부락에 노획된 것에 대해 비분을 표현하였다. 이때 천하 질서에 대한 송나라의 관점은 이하지방(夷夏之防)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민족, 나라, 국경 의식이 더욱 강해졌으며, ‘화이대립(華夷對立)’·‘양이’의 관념 또한 뚜렷이 드러났다. 북송 시기의 관리는 각자 맡은 지역에 편안히 지낸다는 관념과 ‘왕은 주변 민족을 통제하지 않는다.(王者不治夷狄.)’라는 관념을 가지고서는 당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없었다. 화하(華夏)의 ‘예(禮)’와 예악교화(禮樂教化)에 대한 계승은 남송 정권을 유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夷狄)들이 지속적으로 중원을 어지럽혔기에 전통적인 예의와 도덕을 회복할 수 없었다. 위료옹의 시각에서 예제문화(禮製文化)는 화하와 이적을 구분하는 표식일 뿐만 아니라 예의 문명과 야만 문명을 구분하는 표식이기도 하였는데, 그는 『춘추』

9) 『鶴山文集』卷190, 〈師友雅言〉, 933쪽, “中華自靖康以來, 為女真亂其種姓, 幾百餘年而不復, 意謂上天悔禍中原, 有豪傑崛起, 尚可以僅存, 今又以黠鞬荐興, 種姓又變, 女真為黠民, 此皆東北之裔夷, 嗜殺殘忍如禽獸, 中土未有復禮義之期. 且如五胡亂華以來, 經六代至隋唐, ……變化涵養, 以致本朝, 始漸改革為善類, 夫豈一朝一夕之積, 以目前論之, 蜀之三邊與荊襄兩淮之邊民, 淪於黠以易種姓者何限, 此極可哀悼也, 天下何時而復古耶!”

의 ‘존왕양이’ 사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춘추』는 ‘왕(王)’을 존경하기 위해 지었다. ‘신하(臣)’가 군주(君主)를 부르기 때문에 『춘추』는 여전히 진후(晉侯)의 ‘휘(諱)’에 속하며, ‘이 주왕에게 활을 쏘아 어깨에 부상을 입혔다’에 대해서도 『춘추』는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초나라는 중국을 병들게 하였기에 처음에는 ‘형(荊)’이라 불렀고, 오나라는 중국의 원조였다. 나아가 ‘작’이라 부르는데, ‘화곤부월(華袞斧鉞)’라는 한 글자의 포폄으로 『춘추』의 법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위료옹에 따르면 초나라는 춘추전국 시기의 강국이었으나 중원을 벗어나 있어 당시 중원 제후들에 의해 ‘형만(荊蠻)’이라고 불렸다. 『곡량전』은 “형만은 초나라 사람이다. 형이란 적이다. 성인이 존재하면 후대 중의 분명히 미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천자가 약하면 분명히 먼저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가 있다.”<sup>11)</sup>하여 형은 적이다.’라고 해석한다. 여기에서 ‘초’를 ‘형’으로 칭하는 것은 한 글자를 사용하여 폄하하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은 위료옹의 저술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서』에서 주나라 선왕(周宣王)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 주나라 강왕(周康王)을 기록하지 않은 것과 같다. 『시』에서 ‘위문(威文)’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춘추』에서 ‘관중(管仲)’을 기록하지 않은 것과 같다. ‘서리(黍離)’가 『시경』 「국풍(國風)」에 떨어지게 되자 성인은 왕실의 비굴함을 탄식하게 되었다.<sup>12)</sup>

10) 『鶴山文集』 卷120, 〈問六經疑〉, 831쪽, “『春秋』 為尊王而作, 以臣召君, 「春秋」 猶為晉侯諱, 況射王中肩之事, 「春秋」 尚忍言之哉. 楚為中國患, 始而稱荊: 吳為中國援, 則進而稱爵, 一字之華袞斧鉞, 「春秋」 之法具在.”

11) 『春秋穀梁傳』 「莊公十年」, “荊者, 楚也. 何謂之荊? 狄之也. 聖人立, 必後至, 天子弱, 必先叛, 故曰荊, 狄之也.”

12) 『鶴山文集』 卷120, 〈問六經疑〉, 831쪽, “『書』之不記宣王, 亦猶『詩』之不錄康王也, 「詩」之不錄威文, 亦猶「春秋」之不錄管仲也: 黍離降於國風, 聖人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三代) 시대가 지난 후에도 호칭은 엄했지만 송나라는 ‘객경(客卿)’으로 ‘공’이라 칭하고, 노나라는 ‘주공(周公旦)’과 ‘이왕’으로 이후에 함부로 ‘공’이라 칭한 적이 없고, ‘백(伯)’은 한동안 ‘공(公)’으로 불리다가 점차 ‘공’이라는 뜻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초나라 섭공(楚葉公)’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오랑캐의 예가 참람한 것이 원인이었다.<sup>13)</sup>

중원 화하의 각 사대부가 『서리(黍離)』를 창작한 것은 “성인의 사적이 실전되며 『시』도 따라서 소멸하고 『시』가 소멸하자 『춘추』가 생겼었다.”<sup>14)</sup>고 할 때였다. 공자(孔子)가 지은 『춘추』는 노음공(魯隱公) 원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해는 바로 주평왕(周平王) 동천(東遷) 말년이었다. 주왕실(周王室)이 동천한 후 비록 천왕(天王)의 명은 존재하였으나 주평왕이 천하의 왕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위료옹은 주왕실의 역량이 약해졌기에 다른 제후국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었으며, 주평왕이 더 이상 천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에 한탄하였다. 또한 화하의 ‘예’는 엄밀한 질서와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등급을 정하고 차이를 명확히 한다. (定等級, 明差別.)’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다. 『공양전』에서는 천자·제후·대부(大夫)·사(士)의 수직적 종속 질서에 대해 매우 공감하였고,<sup>15)</sup> 등급과 신분예 따라 호칭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화하의 예악문명이 가지는 구조에서는 각각의 계급이 분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와 윤리 규정이 있어 참월(僭越)이 허용

以嘆王室之卑。”

13) 『鶴山文集』 卷190, 〈師友雅言, 908쪽〉, “三代以後, 稱呼猶嚴, 惟宋以客稱公, 魯以周公同二王, 後未曾妄以稱公者, 伯有一段以公稱, 漸有稱公之意, 若葉公, 則夷禮僭者也.”

14) 『孟子』「離婁」, “王者之跡熄而『詩』亡, 『詩』亡而後『春秋』作.”

15) 『春秋公羊傳』「隱公三年」, “三月庚戌, 天王崩. 何以不書葬, 天子記崩不記葬, 必其時也. 諸侯記卒記葬, 有天子存, 不得必其時也. 曷為或言崩或言薨, 天子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傳)”

되지 않았다. 각 등급 순서의 ‘예’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정도로부터 등급과 신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예제 요구에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료옹은 ‘중국’과 이적의 차이는 인종과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도 예의 도덕과 문명 발전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초나라 군주가 주나라의 예제에 불복하고 ‘왕’으로 자칭한 것은 바로 이적의 대역무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천하의 ‘왕’은 주천자(周天子) 한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료옹은 이적이 예를 참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좌전』「희공이십삼년」은 “기성공이 죽었다. 사람들은 ‘자(子)’로 폄칭하여 이적이라 간주했다.”<sup>16)</sup>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위료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것은 기나라 성공이 오랑캐의 예를 행하여 종신토록 하였으니, 그래서 ‘졸(卒)’자로 그를 폄하하였다. 그때 ‘기나라’는 실제로 ‘백’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만 ‘자’라고 부른 것은 공자가 글자로 폄하한 것이며, 말은 오랑캐 대국의 성한 모양과 같다.<sup>17)</sup>

또한 『춘추』「희공이십칠년」은 “봄에 기나라 환공(桓公)이 왕을 뵈러 왔다.”<sup>18)</sup>라고 하고 『좌전』은 “봄에 기나라 환공이 왕을 뵈러 왔으나 이적의 예의를 사용하여 그를 ‘자(子)’라 하였다.”<sup>19)</sup>라고 하였는데, 위료옹은 다음과 같이 논술한다.

기나라는 선대 이후 ‘동이’ 때문에 풍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언어와

16) 『春秋左氏傳』「僖公二十三年」, “杞成公卒. 書曰, 子, 杞夷也.”

17) 『春秋左傳要義』卷16〈杞用夷禮貶書子〉, 13쪽, “此杞成公始行夷禮, 以終其身, 故於卒貶之. 於時, 杞實稱伯, 唯此獨稱子, 是仲尼以文貶之, 言如夷狄之大國耳.”

18) 『春秋左氏傳』「僖公二十七年」, “春, 杞子來朝.”

19) 『春秋左氏傳』「僖公二十七年」, “春, 杞桓公來朝, 用夷禮, 故曰子.”

의복이 때때로 오랑캐와 같기 때문에 ‘기자’가 죽은 후에 그가 오랑캐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지금 ‘조’라고 하는 자는 조정의 예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불완전하여 개나라 갈로(介葛盧)와 다르기 때문에, 오직 그 작위를 폄하하였다.<sup>20)</sup>

사실상 『좌전』의 경우 작위가 다른 제후들이 죽었을 때 일률적으로 ‘공(公)’이라고 존칭하였다. 원래 기나라(杞國) 군주의 작위는 ‘백작(伯爵)’이었기 때문에 『춘추』에서는 기나라 군주를 언급할 때 대부분의 경우 ‘기백(杞伯)’이라고 불렀다. 기나라는 작았으나 하나라(夏朝) 왕실의 후예로 인지되었다. 그러나 기나라 군주가 노나라(魯國) 군주를 뵈는 때 ‘이예(夷禮: 오랑캐의 예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예절로 간주되어 ‘자(子)’로 폄칭되었다. 위료옹은 기나라가 화하의 후예이기에 화하의 예의, 언어와 복장을 버리고 만이(蠻夷)의 예절 등으로 바꾼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와 풍습으로 인해 기나라는 더이상 화하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夷)’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료옹은 『춘추』의 대의가 ‘존왕양이’에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엄화이지방(嚴華夷之防)’이라는 사상을 강조한다.

신(臣)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 능한 자는 오랑캐의 성쇠를 따지지 않고 나의 허실(虛實)을 따진다고 들었다. 중국과 오랑캐는 하나의 기일 뿐이지만, 그 성쇠는 확실히 우리 것과 같지 않다. 선왕은 그의 반역과 복종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하여 비록 덕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그를 대접하더라도, 일찍이 시기와 이간질의 나타내는 것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어찌 인도(引導)함으로써 이를 수 있겠는가? 원조에 기대어 조금도 근심과 제방(提防)이 없겠는가?<sup>21)</sup>

20) 『春秋左傳要義』 卷17, 〈杞用夷禮貶爵曰子〉, 14쪽, “杞, 先代之後, 而迫於東夷, 風俗雜壞, 言語衣服有時而夷, 故杞子卒, 傳言其夷也. 今稱朝者, 始於朝禮, 終而不全, 異於介葛盧, 故唯貶其爵.”

21) 『鶴山先生大全文集』, 『論夷狄叛服無常力圖自治之實』, “臣聞善為天下者, 不

옛날에는 오랑캐를 대하는 사람은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했을 뿐이다.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남을 돕는 것으로 돌아보면 손해만 보고 이익은 보지 못했다. 도움이 끝나면 이미 물러나고 옛 도읍(都邑)으로 돌아갔는데, 처음의 무뢰한은 번융(蕃戎)이었다.<sup>22)</sup>

화하 문명이 이적(夷狄)과 맞섰을 때 위료옹은 이적의 성쇠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적은 화하 예악문명의 기초와 도덕의 교화가 없으므로 오래도록 흥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동시에 위료옹은 남송 조정이 전통적인 화하 문명을 철저히 지키고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오래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이적은 백년까지 못간다.’(夷狄無百年之運)라는 관점은 남송 학술계의 보편적인 화이관(華夷觀)을 반영하였다. 사실상 위료옹의 ‘존왕’ 사상은 강상 윤리에 대한 존숭과 도통(道統)에 대한 계승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의 ‘양이’의 관념은 금나라(金朝)에 의해 침해된 민족 정서로부터 해명할 수도 있고 화하 문화 및 예악 문명에 대한 수호와 민족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호소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때의 화하와 만이 간의 논쟁은 화하 문화의 정통성과 예악 문명의 우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화하와 만이의 문화적 한계와 대립을 강조하였다.

### 3. 군신공치(君臣共治)

군신론(君臣論)은 유교 정치 철학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위료옹

計夷狄之盛衰，而計在我之虛實，中國夷狄一氣耳，其盛衰誠無與於我者，先王以其叛服去來荒忽無常，故雖懷之以德，接之以禮，未嘗逆示猜閒，然亦豈引而致之，倚與為援，而略無防慮也？”

- 22) 『鶴山先生大全文集』, 「論夷狄叛服無常力圖自治之實」, “古之所謂待夷狄者, 亦惟盡吾所以自治之道而已, 顧捨其在我以資乎人, 只見其害, 未睹其利也, 結贊既退, 旋復舊京, 初無賴乎蕃戎.”

은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 되어 영광과 치욕을 함께 한다.(君臣一體, 榮辱共之.)’<sup>23)</sup>라는 관념은 송나라의 군신 관계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드러낸다. ‘군신 일체’의 관점은 서주(西周)시기에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무왕(武王)이 주왕(紂王)을 정벌했을 때 “‘紂에게는 億兆의 夷人이 있으나 덕(德)이 같지 않고, 나에게는 난신(亂臣) 10인이 있으나 마음이 같고 덕이 같다.’”<sup>24)</sup>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체계에서 ‘신(臣)’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춘추전국 시기라는 혼란한 사회 배경으로 인해 군(君)과 신의 위계관계가 혼돈되기도 하였지만 군신 관계는 제자백가(諸子百家) 학설을 심화시키기에 객관적인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선진 유가(先秦儒家)는 군과 신이 서로 연관되며 의존하는 정치적 협력 관계라고 간주하고 군신 쌍방을 인애충의(仁愛忠義)가 충만한 도덕적 관계로 여겼다. 공자와 맹자(孟子) 등이 주장한 선진 유가의 군신 관계론은 당시 사회 정치 배경에서 군자 계층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하였다.<sup>25)</sup> 위료옹은 송나라 촉학의 완성자로서 공자 맹자의 유학(儒學)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군과 신의 관계를 탐구할 때에도 선진 유학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진나라(秦朝)와 한나라(漢朝) 이후 사회 정치 구성의 변혁은 군신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군신 관계에 관한 각종 토론은 점차 통일되었고, 군주 정치의 필요와 예에 입각한 통치로부터

23) 『鶴山先生大全文集』(四部叢刊本), 卷160, 참고.

24) 『春秋左氏傳』「昭公二十四年」, “大誓曰, 紂有億兆夷人, 亦有離德, 余有亂臣十人, 同心同德.”

25) 『論語』「八佾」, 孔子在回答魯定公論君臣關係時說,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孟子』「離婁章句下」, 孟子在答對齊宣王時對此有更精彩細緻的發揮,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仇.”

군존신비(君尊臣卑)의 위계관계가 강화되었다. 송나라의 성리학(性理學)은 공자와 맹자의 학설을 기반으로 하여 ‘삼강(三綱)’을 천리(天理)로 높이고 ‘천리’의 측면에서 군존신비의 질서를 통치하는 필연성을 논증하였으며, 나아가 ‘충군도덕(忠君道德)’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다졌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 분위기에서 위료옹으로 대표되는 사대부들은 군과 신이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 상태인 ‘삼대지치(三代之治)’를 동경하였다.

춘추 시기에는 종법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군과 신의 자연적 종속관계가 점차 해체되었다. 이에 위료옹은 『춘추』의 ‘존왕 대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춘추 시기의 군신 관계가 쇠락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춘추시대에는 천자의 명을 받지 않고 제후들이 서로 맹약을 맺으면 대국은 그 말을 다스리고 소국은 그 일을 망치게 된다.<sup>26)</sup>

춘추 시기에는 주왕실(周王室)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여 천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잃게 되었다. 주왕실이 제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군사력이 강한 제후국은 토지, 인구와 재무를 약탈함으로써 주변의 약한 제후국들을 병합하였고, 그 결과 소국이 대국에 굴복하고 세력이 강한 제후국은 국지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료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천자는 제후를 봉할 때 그 토지의 일부를 나누고, 신하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하기 때문에 제후들은 자기의 봉지 안에서 각자 원호를 고쳤다.<sup>27)</sup>

26) 『春秋左傳要義』 卷1, 〈大國制盟辭小國尸其事〉, 10쪽, “春秋之世, 不由天子之命, 諸侯自相與盟, 則大國制其言, 小國尸其事.”

27) 『春秋左傳要義』 卷1, 〈諸侯於封內各得改元〉, 8쪽, “天子之封諸侯也, 割其土壤分之, 臣民使之專為己有, 故諸侯於其封內, 各得改元.”

제후들은 각각 왕명을 수여하고, 각자 환우가 있고, 천자를 섬기고, 이웃나라와 사귀고, 천자는 제후를 믿지 않고, 제후들은 스스로 믿지 않고, 맹이 요지를 맹세하고, 모든 회맹의 예의는 가축을 죽이고 삼혈하고, 신명에게 맹세하고, 만약 어기면 신명에게 화를 입히려고 한다.<sup>28)</sup>

주천자(周天子)가 제후를 분봉하였으나 제후들은 각자 갈 길을 가며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천자는 제후국을 소집하여 ‘회맹(會盟)’시키는 방식으로 제후국을 서로 단속함으로써 제후 각국을 통솔하는 권위를 확립하였다. 주나라는 분봉제(分封製)를 실행하여 천자와 제후가 함께 천하를 다스리고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서로를 제약하는 제도를 실행한 것이다. 비록 분봉된 제후는 주천자의 명령에 따라 주천자를 위해 국경을 지키고 작전을 수행하고 공물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군주전제제도(君主專製制度)에 비해 제후와 귀족의 제한된 자주권은 주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

『좌전』「노향공이십칠년」은 “여름에 노나라(魯國) 대부 숙손표가 송나라에서 진나라(晉國) 조무, 초나라 굴건, 채나라(蔡國) 공손귀생, 위나라(衛國) 석악, 진나라(陳國) 공환, 정나라(鄭國) 량소와 허나라(許國) 대표, 조나라(曹國) 대표를 만났다.”<sup>29)</sup>, “가을 신묘에 숙손표와 제후국 대부들이 송나라에서 맹약을 체결했다.”<sup>30)</sup>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바로 『춘추』의 유명한 ‘미병지회(弭兵之會)’이다. 회맹의 관례에 근거하면 회맹은 제후가 주재해야 하지만 이번 회맹은 송나라 대부 화원(華元)이 진나라(晉國)와 초나라 사이를 누

28) 『春秋左傳要義』 卷1, 〈天子盟諸侯之禮之時之法〉, 8쪽, “諸侯具授王命, 各有賓字, 上事天子, 旁交鄰國, 天子不信諸侯, 諸侯自不相信, 則盟以要之, 凡盟禮殺牲歃血, 告誓神明, 若有背違, 欲令神加殃咎.”

29) 『春秋左氏傳』「襄公二十七年」, “夏, 叔孫豹會晉趙武, 楚屈建, 蔡公孫歸生, 衛石惡, 陳孔奐, 鄭良霄, 許人, 曹人於宋.”

30) 『春秋左氏傳』「襄公二十七年」, “秋七月辛卯, 豹及諸侯之大夫盟於宋.”

비며 양국의 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춘추』는 호칭에 찬사와 폄하를 구분하여 ‘존왕양이’와 ‘내제하이외이적(內諸夏而外夷狄)’을 강조하고 화하의 정통을 수호하기 위해 이적과 친하게 지낼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적이라 칭하는 초나라와 화하의 중심인 진나라(晉國)가 회맹한 것은 군신의 의리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것은 군신의 질서와 제도가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좌전』은 임금이 인재를 등용할 때에 상황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심전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금이 신하를 등용할 때는 일부로 전체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단점으로 그의 장점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전심전력으로 대하고 그들에 대한 충직과 신뢰를 명시하면 신하들은 필연적으로 임금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하는 임금을 보좌하기 위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 『좌전』, 「성공이년」은 “화원과 악거는 여기서 신하로서의 도를 잃었다. 신하는 임금의 번잡함을 없애고 미혹을 해소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해야 하나 이 두 사람은 임금이 살아 있을 때는 방종하고, 죽은 후에도 더욱 사치스러워, 이것은 임금을 악에 몰아넣는 것이니 이것이 무슨 신하의 행위일까.”<sup>31)</sup>라고 하였으며, 『좌전』, 「장공십구년」 또한 “임금에게 간언하여 형벌을 받았다. 형벌을 받아도 임금을 정도(正道)로 이끈다”<sup>32)</sup>라고 기록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좌전』의 군신공치 사상을 나타낸다.

삼대의 관제는 무릇 춘추전국시대 이래 군주를 가까이하고 총애를 받는 자는 모두 권력을 가진다. 삼대 때 삼공(三公)은 도를 논하고, 육경(六卿)은 부하를 통솔하는데 매우 존귀하고 장엄하다. 예를 들어 내

31) 『春秋左氏傳』「成公二年」, “華元樂舉於是乎不臣, 臣, 治煩去惑者也, 是以伏死而爭. 今二子者, 君生則縱其惑, 死又益其侈, 是棄君於惡也, 何臣之為.”

32) 『春秋左氏傳』「莊公十九年」, “諫以自納於刑, 刑猶不忘納君於善.”



사(內史)와 외사(外史), 어사(御史)와 오사(五史)는 책명(策命)만 관리할 뿐, 군주의 가까운 신하들은 춘추에 이르러 조순이 임금을 시해한 것처럼 남사씨(南史氏)만을 두려워한다. …… 당조(當朝)에 이르러서는 중서(中書)와 상서(尚書)의 추밀(樞密)이 합쳐져 이부(二府)가 되었다. 대체로 秦나라와 漢나라 이후 삼대에 군주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신하들이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삼공육경의 관직은 대부분 허위(虛位)를 차지하니 세상이 변한 것이다.<sup>33)</sup>

삼대치세(三代之治)는 정치 이상에 대한 유학자들의 동경을 대표하며, 삼대지치(三代之治)는 이후 오랫동안 후대에 의해 칭송받았다. ‘삼대’ 시기의 임금들은 도덕적 인성으로 나라를 다스렸기에 후대 임금들의 모범이 되었고 ‘삼대’의 문화와 정치적 형태를 국가 안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유학자들은 모두 ‘삼대’를 숭상하며 이를 일종의 정치적 이상으로 간주하여 당시의 기준으로 삼았다. 위료옹은 삼대 시기에 삼공육경(三公六卿) 등의 신하들은 지위가 높고 권위가 무거우며 임금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했다고 서술한다. 즉 임금의 권력이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야 군과 신이 서로 의지하며 천하를 함께 다스리는 정치 구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위료옹은 ‘분직(分職)’ 문제를 중시하였다. 이는 권력자가 자신이 맡은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임금이든 신하든 자신의 직무를 다 해야만 만물이 제자리를 찾아가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위료옹은 이와 같은 견해를 특별히 칭송한다.

33) 『鶴山文集』 卷190 〈師友雅言〉, 809쪽, “三代官制, 凡春秋戰國以來, 褻近人主者皆持權. 當三代時, 三公論道, 六卿帥屬甚尊嚴, 如內史外史、御史五史止掌策命, 王之親近之臣, 至春秋如趙盾弑君, 專畏南史氏. ……至當朝乃中書尚書樞密並為二府. 大率秦漢以後, 三代所謂最褻近之臣, 最秉重權; 而三公六卿之官, 多擁虛位, 世變然也.”

연례(燕禮)의 예법은 군주가 한 사람을 손님으로 모시고, 재부(宰夫)를 위주로 하여, 그와 서로 마주보고 예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군주가 술과 음식을 차려 군과 신하가 모두 가지고 있으니 군주가 주인이고, 신하들이 모두 하객이다. 술에는 연회에서 주인이 술을 권하는 폐가 있고, 음식에는 연회식 주인이 정성스런 대접을 베풀기 위해 재물을 손님에게 바치는 폐가 있으며, 군주는 음악을 곁들인 악사(樂師)가 연주한 뒤 대부를 대접했고, 군주는 대부에게 보답하기 위해 백을 묶어서 술을 권했다. 제후(諸侯)가 대부(大夫)를 다른 나라에 문안 보내는 예(禮)는 “술과 음식을 남에게 대접으로 손님의 선물로 접대하고, 군주는 조묘에서 제사를 지내며 손님에게 사례하는 선물이 있다.”고 했다. 옛날의 천자는 제후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예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술과 음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군주는 금으로 장식한 수레를 타고 마중 나와 조묘(祧廟)에 함께 제사 지내는 대향(大饗)의 예절이 있다. 향과 식의 두 가지 예(禮)는 연나라에서 제왕의 분묘에 행하는 예절이다. 알린 것도 있고, 초청한 것도 있으니 우방(友邦)이라고 한다. 군주는 제후와 함께 천하를 수호하고, 천자는 천하를 통일하여 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제후는 한 나라를 통일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모두 군도(君道)가 있다. 위와 아래는 서로 지키고 서로 가까이하며 존경하므로 향락과 재물을 가져오게 한다.<sup>34)</sup>

위료옹은 진나라와 한나라 이전의 ‘군’과 ‘신’이 서로 존경하고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가 올바른 것이라고 여겼으며 이를 매우 동경하며 칭송하였다. 이 때문에 위료옹은 『춘추』와 『주례(周禮)』 등을 해설할 때에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 나타난 존군비신(尊君卑臣)의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술한다.

34) 『鶴山文集』 卷190, 〈師友雅言〉, 924쪽, “燕禮君尊一人為賓, 使宰夫為主, 與之對行禮, 其實君設酒肴, 君臣皆有, 君為之主, 群臣總為賓也. 飲有酬賓送酒之幣, 食有侑賓勸飽之幣, 公食大夫賓三飯之後, 公報大夫束帛以侑. 聘禮云: 致饗以酬幣, 明親饗有酬幣矣. 古者天子有迎送諸侯之禮, 如今之饗大賓, 則王乘金輅迓, 有大饗於廟之禮: 有燕於寢之禮: 有戒有速, 謂之友邦冢. 君乃與諸侯共守天下, 天子統天下而君之, 諸侯統一國而君之, 皆有君道. 上下相維, 相親相敬, 故使人致享致幣.”

천자는 천하를 통일하여 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제후는 한 나라를 통일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모두 군도(君道)가 있다. 위와 아래는 서로 지키고 서로 가까이하며 존경한다. 진나라가 제후를 폐위시키고 군수(郡守)를 두니 군주를 존중하고 신하를 낮추며, 천자(天子)가 위에 제멋대로 행동하고, 극도로 정욕에 빠져 절제하지 않는다. 천하가 무너진 것은 전적을 불태우고 선왕의 법치를 무너뜨린 잘못이다.<sup>35)</sup>

위료옹은 군과 신이 서로 보완하고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함께 관리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좋은 정치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시황(秦始皇) 때부터 분봉제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製)를 실행하여 임금이 권력을 마음껏 누리게 되자 나라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위료옹은 이전 임금이 세운 제도를 재검토하여 왕과 신이 함께 나라 국무를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송나라 유학자들의 ‘존군(尊君)’ ‘존왕(尊王)’ 사상에서 상당히 보기 어렵고 진보적인 내용이다.

일찍이 북송 초기에 범중엄(範仲淹, 989~1052)은 맹자의 “천하인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천하인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는다.”<sup>36)</sup>를 바탕으로 사대부 계층의 정치적 질서를 재건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는다.’(以天下為己任)라는 사대부 정신을 수립할 것을 제창했다. 따라서 위료옹은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관념이란 이러한 의식을 계승하여 사대부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군신 관계는 대등하고 위아래가 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존군비신이 아니라 군, 신과 나라는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35) 『鶴山先生大全文集』 卷106, 〈周禮折衷〉, 885쪽, “天子統天下而君之, 諸侯統一國而君之, 皆有君道, 上下相維, 相親相敬, 自秦罷侯置守, 尊君卑臣, 一人恣睢於上, 極情縱慾, 而天下瓦解土崩, 此焚滅典籍, 隳壞先王法制之過也.”

36) 『孟子』「梁惠王下」, “樂以天下, 憂以天下.”

#### 4. 이민위상(以民為尚)

도덕을 숭상하고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기존 유교 문화의 ‘상도(常道)’이다. 사실 주나라 시기에 ‘경덕보민(敬德保民)’라는 사상이 제기되어 ‘보식양민(保息養民)’라는 정책이 제정되었는데,<sup>37)</sup> 이것은 초기 유교가 국민을 중시하는 관념의 효시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뒤이어 공자는 ‘성형벌(省刑罰)’, ‘박세렴(薄稅斂)’, ‘사민이시(使民以時)’, ‘제민자산(製民之產)’ 등의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통치자란 국민에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유교의 민생사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그는 한편으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사상을 제기하여 ‘보민(保民)’, ‘부민(富民)’, ‘양민(養民)’, ‘교민(教民)’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민항산(製民恒產)’을 제창하여 인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논설하였다.

『춘추』와 삼전(三傳) 및 유교의 고전은 ‘중민(重民)’, ‘위정以德(為政以德)’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좌전』은 주문공(邾文公), 정자산(鄭子產), 제안영(齊晏嬰) 등 정치가들이 ‘중민경신(重民輕神)’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찬양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소박한 ‘민본(民本)’ 사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임금을 천명을 받은 천자로 삼으면서도 국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강조하고 ‘중민, 보민, 안민(安民)’에 대한 논술 또한 상당히 중시한다. 『좌전』, 「문공육년」은 송양공(宋襄公)이 주문공에게 증자(鄧子)를 죽인 뒤에 그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함으로써 동쪽의 소국들을 협박하려고 했다고 기록한다. 이상의 객관적인 서술에 이어 『좌전』은 송나라 사대부 사마자어(司馬子魚)의 비평을 인용함으로써 진목공(秦穆公)이 춘추의 패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37) 『周禮注疏』卷10, 「地官·大司徒」, 19쪽, 참고.

백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sup>38)</sup>

위료옹은 진보적 사상가로서 민중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시국을 비평하여 사회를 보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 그의 ‘중민’ 사상은 후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위료옹은 유교 사상의 전통을 계승하여 한편으로는 ‘존군’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춘추』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임금의 국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윗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고, 백성의 안정과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것은 그 충성의 표현이다.<sup>39)</sup>

위료옹은 통치자에게 민중의 생활 형편과 생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임금이 자신의 즐거움만을 중시하면서 백성의 생사를 돌보지 않는다면 ‘임금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충이다.’(不思利民, 是不忠也.)라고 직설적으로 논술한다.<sup>40)</sup> 이러한 내용은 바로 ‘충(忠)’의 내용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부여한 것이다. 위료옹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 ‘충’의 내용뿐만 아니라 백성에 대한 임금의 관심, 백성의 생활에 대한 개선, 백성이 안정되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위료옹의 시각에서 ‘충’은 양방향적 의미가 있는데, 그는 군민 관계를 대할 때에 임금이 아니라 국민을 근본으로 삼았다.<sup>41)</sup>

38) 『春秋左傳』「文公六年」, “秦伯任好卒, 以子車氏之三子奄息, 仲行, 鍼虎為殉, 皆秦之良也, 國人哀之, 為之賦〈黃鳥〉, 君子曰: ‘秦穆之不為盟主也宜哉, 死而棄民.’”

39) 『春秋左傳要義』卷7, 〈忠於民而信於神〉, 23쪽, “在上位者思利於民, 欲民之安飽, 是其忠也.”

40) 『春秋左傳要義』卷7, 〈忠於民而信於神〉, 23쪽, “今隨國民皆飢餒而君快情欲, 是不思利民, 是不忠也.”

41) 蔡方鹿, 『魏了翁評傳』, 四川: 巴蜀書社, 1993, 125쪽, 참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은 한 가지 방법에 그치지 않는다. …… 책임을 포기하고, 세금을 얹게 하고, 베풀고, 재난을 나누고, 부족을 도와주고, 정체(停滯)을 완화하고, 가난을 구제(救濟)하고, 없는 것을 원조하고, 관세를 가볍게 받고, 그 처지를 서로 바꾸고, 상업에 통하고, 농업 정책을 완화하고 농사철에 적응하고,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이 서로 돕도록 권유하고, 돈을 절약하고, 재물을 풍요롭게 하고, 훌륭한 도구를 만들고, 명덕을 통해 백성의 성(性)을 두텁게 하는 것은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마음속에 백성의 생활을 품은 사람은 의(義)를 품은 마음이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소홀히 하지 않는다.<sup>42)</sup>

위료옹은 임금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충’과 ‘불충(不忠)’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임금을 일방적인 ‘충’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라 『맹자(孟子)』 ‘민귀군경’의 사상에 대한 재현이라고도 간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충’과 ‘불충(不忠)’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구속하는 무형의 잣대가 되었다. 또한 위료옹은 국민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 위료옹이 보기에 하늘의 뜻은 백성의 의지와 일치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은 바로 하늘을 속이는 것이며, 하늘을 속이는 것도 백성을 속이는 것으로 이것들은 하늘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통치자가 백성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천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치를 하면 백성을 해치지 않고, 힘껏 땅을 갈고 김을 매어 스스로 일을 하여 생산해야 하니 그러므로 백성이 화목하고 풍년이 들었다. …… 그러므로 행동하면 성공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sup>43)</sup>

42) 『春秋左傳要義』 卷17 〈晉文公利民非一民懷其生〉, 3쪽, “利民之事, 非止一途, ……棄責、薄斂、施舍、分災、救乏、振滯、匡困、資無、輕關、易道、通賈、寬農、務穡、勸分、省用、足財、利器、明德以厚民性, 皆是利民之事, 民懷生者, 謂有懷義之心, 不復苟且.”

43) 『春秋左傳要義』 卷7, 〈奉牲食酒告神總以民德馨香〉, 23쪽, “為政不害於民,

통치자가 백성을 중시하기 위해 위료옹은 백성을 하늘과 같은 자리로 높였다. 그는 임금이 반드시 ‘불해우민(不害於民)’을 해야 하고 백성의 기본 생활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들을 적극적으로 농업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만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라는 장기간 태평하며 사회 질서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위료옹은 당시에 나타난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자는 더 부유하면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우며 다스리기 어렵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면 굶주리고 추워서 법을 어긴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sup>44)</sup>

이 문제에 대해 위료옹은 ‘사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노동과 휴식을 대등하게 한다.(均貧富, 等勞逸)’라고 언급하며, 백성이 나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의 농민들이 봉기할 때에 ‘균빈부, 등귀천(均貧富, 等貴賤)’라는 구호를 외친 것과 비슷하였는데, 이것은 빈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료옹의 ‘중민’ 사상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위료옹은 임금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선정을 베풀어야 하며 백성들이 선한 것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得使盡力耕耘, 自事生產, 故百姓和而年歲豐也……故動則有成, 戰無不克.”

44) 『春秋左傳要義』卷27, “富者弥富, 骄奢而难治; 贫者益贫, 饥寒而犯法. 且贫者资富而至贫, 富者削贫而为富. 恶民之富乃是愍民之贫.”

군주는 한 나라의 주인이며 백성의 위에 있으니 마땅히 스스로 바르게 행하고 법(法)으로 백성을 몰아 선(善)으로 들어가게 한다.<sup>45)</sup>

임금은 백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토대 위에서 법, 도덕과 예의 측면을 결합하여 통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선한 것을 따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임금은 도덕적 교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백성 마음속의 '선(善)'을 인도하여 일깨우며 예제(禮制)로 백성의 행동을 구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임금에게 복종하게 되고, 임금도 '덕화(德化)'라는 통치 수단을 통해 백성의 추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위료옹은 이것 역시 '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46)</sup>

『좌전』「노선공사년」은 “전나라의 공자 귀생(歸生)이 그 임금 이(夷)를 시해하였다.…… 대개 임금을 시해한 경우에 임금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임금이 무도(無道)했음을 나타내고 신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신하에게 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sup>47)</sup>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위료옹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군주가 목숨을 거는 이유는 …… 원래 부자의 자연스런 은혜도 없고, 가족들의 놀이와 같은 사랑도 없고, 고하의 격차도 크고, 통하지

45) 『春秋左傳要義』 卷4, 〈非講大事備器用為不軌之物〉, 3쪽, “人君一國之主, 在民之上, 當直己以行之, 以法驅民而納之於善.”

46) 『鶴山文集』 卷190, 〈鶴山雅言〉,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 以為今之民亦與三代之民同, 何為古之民心如此, 今之民心如彼, 與義疏家說不同. 後見晦翁說岐豐之地, 文王用之以興, 二南之化如彼, 其忠且厚; 秦人用之未幾, 而一變其俗. 見於詩者, 大抵尚氣概先勇力已, 悍然有招八州而朝同列之氣. 蓋雍州土厚水深, 其民敦重質直, 以善導之, 則易以興起; 以猛之, 則其強毅果敢之質強之業. 以此見今民與三代之民皆同, 而上之導民, 不可不謹也.”

47) 『春秋左氏傳』「宣公四年」, “鄭公子歸生弑其君夷. ……凡弑君稱君, 君無道也, 稱臣, 臣之罪也.”



않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덕과 재주가 있어 은거하여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안정시킴으로써 아래를 살피며 성의를 나타내고 감명을 받은 후에 서로 친해질 수 있다. 숭고한 지위 때문에 제멋대로 굴면 군신(群臣)들이 잊지 못할 것이고, 정이 단절되어 군주와 신하가 아닌 낯선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면 비록 국호의 위치는 남아 있지만 스스로 굳힐 수 없다. 그래서 전례(傳例)는 무릇 군주를 시해하고 君이라 부르는 자는 도(道)가 없다. 君이라 부르는 자는 오직 君의 이름을 쓴다. 국가를 칭함과 사람을 칭함은 ‘시(弑)’로 국가를 칭함과 사람을 칭함은 많은 사람이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sup>48)</sup>

또한 『좌전』 「노성공십오년」은 “진후가 조백을 붙잡았다. 성공이 백성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임금이 백성들에게 무도하여 제후들이 그를 쳐서 붙잡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제후를 붙잡았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이다.”<sup>49)</sup>라고 하는데, 위료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 군주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의 본성을 잃지 않게 하였다. 만약 백성의 위에 군림하여 제 마음대로 하고, 원수를 감싸주는 자가 있어서, 제후가 그를 정벌하기에 이른다면, 그것을 ‘모인집모후’라고 칭하니 대중들이 정벌하는 글이다.”<sup>50)</sup>

48) 『春秋左傳要義』 卷22, 〈弑君稱君無道稱臣臣之罪〉, 16쪽, “君所以繫命, ……然本無父子自然之恩, 未有家人翫玩之愛, 高下之隔懸殊, 壅塞之路萬端。是以居士者降心以察下, 表誠以感之, 然後能相親也。若崇高自肆, 群下難忘, 情誼圯隔, 是為路人, 非君臣也。人心苟離, 則號位雖存, 無以自固。故〈傳例〉曰: 凡弑君稱君, 君無道。稱君者, 惟書君名。而稱國、稱人以弑, 言眾之所共絕也。”

49) 『春秋左氏傳』 「成公十五年」, “晉侯執曹伯, 不及其民也。凡君不道於其民, 諸侯討而執之, 則曰某人執某侯, 不然則否。”

50) 『春秋左傳要義』 卷28, 〈惡不及民不稱人以執〉, 15쪽, “天生民而樹之君, 使司牧之, 勿使失性。若乃肆於民上, 人懷怨讎, 諸侯致討, 則稱某人執某侯,

위료옹 개인이 가지는 계급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중민(重民)’과 ‘민본(民本)’ 사상은 ‘존군(尊君)’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위료옹은 사회적 병폐에 직면하여 분명하고도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성을 중시하는 사상은 그가 『춘추』 가운데 ‘이민위주(以民為主)’ 사상을 긍정하고 직접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을 충분히 나타낸다.

## 5. 결론

위료옹은 시대 발전을 관찰하고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한 뒤에 이 둘을 결합하여 유교 고전에 근거한 각종 주장들을 펼침으로써 자주적 사고 정신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한나라와 송나라 학술을 융합하고 고증과 의리를 결합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송나라 시기의 경학을 초월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춘추학의 측면에서 위료옹은 경학(經學)의 낡은 전통을 타파하고 역사적 방법을 결합하여 경서를 연구하였는데, 이것은 명나라(明朝) 말기와 청나라(清朝) 초기에 나타난 『육경개사(六經皆史)』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춘추좌전요의』에 대한 해석과 고찰을 통해 필자는 위료옹의 춘추학 사상이 가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공자의 ‘존왕양이(尊王攘夷)’·‘주란신적자(誅亂臣賊子)’의 주장을 계승하며, 이를 『춘추』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공자가 『춘추』를 작성할 때는 예법이 파괴된 시기였기에 공자는 존왕양이를 제창하고 정통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위료옹이 처했던 남송 시기 또한 외환이 심각하였고, 통치자는 편안함에 안

---

眾討之文也.”

주하여 예부터 전해 내려온 지역적 우위를 상실하였다. 그는 존왕 양이 사상을 거듭 표명하고 이를 주요 사상으로 삼아 당시의 특수한 정치 문화 배경과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또한 위료옹은 이적의 침입에 맞서 ‘존왕’의 측면에 입각하여 화하의 정통과 예악(禮樂) 문명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주장했으나 현실적인 정치의 몰락으로 인해 이적이 예악 문명의 토대 없이는 변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둘째, 위료옹은 ‘군’과 ‘신’의 관계는 평등하면서도 함께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군신일체, 영육공지(君臣一體, 榮辱共之)’의 이념을 제기하였다. 위료옹은 춘추 시기의 역사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천자와 제후가 함께 천하를 다스리고 권력을 분산하여 서로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보기에 신하는 임금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임금을 제약하는 권력이기도 하다. 임금과 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잘해야 나라가 ‘삼대지치(三代之治)’의 아름다운 정치 형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위료옹은 민생 문제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백성이 나라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인지하였다. 그는 백성의 생계 문제와 생활을 지켜본 뒤에 임금의 ‘불사이민(不患利民)’을 ‘불충’의 표현으로 간주하면서 ‘충’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백성의 생계 문제가 해결된 토대 위에서 임금은 ‘덕치(德治)’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백성 마음을 교화하여 ‘선’으로 인도하고 민심을 복종시켜야 한다. 비록 위료옹의 계급과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중민 사상은 ‘존군(尊君)’을 전제로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춘추』에 대한 중민 사상의 확장과 발전이라고 여길 수 있다.

## 참고문헌

『論語』

『孟子』

『春秋左氏傳』

『春秋左傳要義』

魏了翁, 『鶴山文集』

魏了翁, 『鶴山先生大全文集(四部叢刊本)』

蔡方鹿, 『魏了翁評傳』, 四川: 巴蜀書社, 1993.

顧炎武, 『日知錄』, 臺灣: 臺灣中華書局, 2020.

程顥·程頤, 『二程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元人, 『春秋三傳』, 北京: 中國書店, 1994.

范寧, 『春秋穀梁傳』, 臺北: 新興書局, 1964.

鄭玄, 『周禮注疏』,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20-2021

黎靖德, 『朱子語類』, 서울: 소나무, 2001.

朱熹 集註: 鄭太鉉 譯註, 『論語集注』,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8.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주제 속 주희, 현대적 주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투고일: 2022. 10. 20 심사완료일: 2022. 12. 22 게재확정일: 2022. 12. 23)

성명: 장상량

소속: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주소: (03064)서울시 종로구 명륜6길 18, 202호

전자우편: vip88888868@gmail.com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iryoong's Spring and Autumn Studies

- Focusing on "The Essentials of Zuo zhuan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

Zhang, Xiangliang\*

Wei Liaoweng was a famous Neo-Confucianist, thinker, classicist, educator and writer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His Confucian classics were based on the Han and Song dynasties, and the foundation of Song Confucianism was the foundation, which wa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development of Confucian classics at that time. Wei Liaoweng does not abandon the annotations of Du Yu and Kong Yingda, but respects the textual meaning of the original texts of the classics. It is a classic worthy of attention and study. This article takes "The Essentials of Zuo Chuan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s the cent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ei Liao Weng's thought of Chunqiu.

Key words : Wei Liaoweng; The essence of Chunqiu Zuo zhuan;  
Song Dynasty; The Spring Autumn Doctrine